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삶(회심과 회개)



ICE BREAK TIME

[계기]

"기회는 3번 찾아온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3번의 기회를 경험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나 자신이 있도록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
| <input type="checkbox"/> 삶의 터전을 옮겼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
| <input type="checkbox"/> 책이 나를 바꿨어요 | <input type="checkbox"/>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
| <input type="checkbox"/> 예수님 빼고 말 못해요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나눔: 이번 설교에 대하여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민 9:22 (하나님의 인도하심)]

▶ 찬양: 251(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기도: 구역원 중

▶ 성경봉독: 요한일서 1:9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1)하나님과 사람, 2)사람과 사람, 3)사람과 만물, 4)만물과 만물의 질서와 관계가 창조의 선함으로 회복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창조질서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심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1) 민족적 회심(히스기야 시대, 요시아 시대, 느브웨 사람들의 회심 등), 2) 잠시 동안은 진정한 회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일시적인 회심(마 13:20-21; 딤후 1:19; 딤후 2:17-18; 히 6:4-6; 요일 2:19), 3) 진정한 회심 그리고 4) 반복적 회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심과 반복적 회심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회심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심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회심이 바울과 같이 현저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점진적인 과정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예레미야, 세례요한, 디모데 등).

그러면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별곡, 703). 그리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빛에 나의 더러운 죄의 존재가 낱알이 드러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통회 자복하며 동시에 죄인인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은 이제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오직 사나 죽으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에는 신앙(믿음)과 회개가 속하게 됩니다.

성도는 회심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하고(믿음/신앙) 또한 자신의 “생의 전 과정을 수정하는 생각과 의견, 욕망과 의지의 변화”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 출발점”이 됩니다(벌콧, 734).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죄를 인정하는 지성적 요소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에 죄를 지은 당사자로서 애통하는 정서적요소입니다(시 51:2,10,14; 고후 7:9, 10; 마 27:3; 눅 18:23). 그리고 3) “목적의 변화, 죄로부터 내적으로 멀어짐, 용서와 정결을 구하는 성향”인 의지적 요소입니다(시 51:5,7,10; 렘 25:5; 행 2:38; 롬 2:4).

이러한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신앙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생한 죄인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회심은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구역에 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회심은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 회심을 언급합니다. 단회적인 회심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복적 회심을 “회개”라고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시적으로 죄의 길에 빠진 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복적 회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벌콧, 733).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심이 분명히 나옵니다(계 3).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때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계속, 즉시).

지금까지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첫째는 “나는 회심하였는가?” 하는 질문이요
2. 둘째는 회심한 성도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심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구역 식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회심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회심이후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죄는 그 죄를 짓는 순간 다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으로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갈라놓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능력도 상실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졸리기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적받아도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시며 동시에 아파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부인이 사라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국의 삶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극한 가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박한 심령이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깨어집니다. 살아있으나 죽은자요 육신적인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가 침투해 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 찬송(헌금시간): 279(인애하신 구세주여)

▶ 주기도문, 구역의 교제를 나눕니다

나눔과 기도

구역원의 기도제목과 아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 하나님의 뜻 분별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배, 교제, 사역, 훈련, 전도)되게 하소서.
- 참된 부흥(진실한 회개, 간절한 기도, 진리의 말씀, 성령충만)
- 교회 평안과 안정, 안정화 사역의 은혜, 모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소서.
- 교회의 언론 및 법적 문제 해결(총회 재판, 사회법정 등)
- 성도의 시험과 악, 사단의 역사로 부터의 보호
- 모든 성도의 축복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
- 하반기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인도선교, 성례, 전도축제 등)
- 내년 사역 준비, 조직구성, 사역자 및 임원선출 등에 은혜 주옵소서
-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 인도와 열방 복음화 위하여
- 개인의 기도제목과 소원을 위하여.